

작품 더 연구해 보기

‘공방’의 상징적 의미

주인공인 ‘공방’은 둥글다는 의미에서 ‘공(孔 구멍 공)’, 그리고 구멍의 모난 모양에서 ‘방(方 네모 방)’을 사용하여 지은 이름이다. 공방은 표면적으로는 돈을 의미하지만 염치없고 욕심 많은 부정적 의미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공방전〉의 우의적 표현과 시대적 배경과의 연관성

〈공방전〉 등 가전체 문학이 창작되던 시기는 고려 중엽 이후로 사회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무신의 난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몽골의 침입을 받은 내외외환의 상황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가전체 문학은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문학의 양식으로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람을 문학 속의 인물로 내세우거나 직접적으로 교훈하기보다는 사물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변에 더 안전하였을 것이다.

공방전(孔方傳) - 임춘

공방(孔方)의 자(字)는 관지(貫之)다. 공방이란 구멍이 모가 나게 뚫린 돈, 관지는 돈의 껍미를 뜻한다. 그의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 속에 숨어 살면서 아직 한 번도 세상에 나와서 쓰인 일이 없었다.

그는 처음 황제(黃帝) 시절에 조금 조정에서 쓰였으나 워낙 성질이 굳세어 원래 세상 일에는 그다지 세련되지 못했다.

어느 날 황제가 상공(相工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보였다. 상공은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말했다.

“이는 산야(山野)의 성질을 가져서 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리하오나 폐하께서 만일 만물을 조화하는 풀무나 망치를 써서 그 때를 굽어 빗을 낸다면, 그 본래의 바탕이 차차 드러날 것입니다. 원래 왕자(王者)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그릇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저 쓸모없는 완고한 구리쇠와 함께 내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리하여 차츰 공방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뒤에 일어난 리를 피하여 강가에 있는 숯 굽는 거리로 옮겨져 거기에서 오래 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천(泉)은 주(周)나라의 대재(大宰)로서 나라의 세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천(泉)이란 화천(貨泉 중국 신나라 왕망이 발행한 경화)을 말한다.

공방의 생김새는 밖이 둥글고 구멍이 모나게 뚫려 있다. 그는 때에 따라서 변통을 잘한다. 한번은 한(漢)나라에 벼슬하여 홍려정이 되었다. 그때 오왕(吳王) 비(妃)가 교만하고 참람(하는 짓이 분수에 지나침)하여 나라의 권리를 혼자서 도맡아 부렸다. 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무제 때에는

온 천하의 경제가 말이 아니었다. 나라 안의 창고가 온통 비어 있었다. 임금은 이를 보고 몹시 걱정했다. 방을 불러 벼슬을 주고 부민후(富民侯)로 삼아, 그의 무리인 염철승(鹽鐵丞)¹⁾ 근(僅)과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이때 근은 방한테 항상 형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방은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는 돈의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다는 법을 좋아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백성을 상대로 한 푼, 한 리의 이익이라도 다투는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추어 곡식을 몹시 천한 존재로 만들고 다른 재물을 중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맨 끝인 장사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이것을 본 간관(諫官)²⁾들은 상소를 하여 이것이 잘못이라고 간했다. 하지만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방은 또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몹시 재치 있게 잘 섬겼다. 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치우는 것마저도 모두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한다고 하는 공경(公卿 지위가 높은 고관)들까지도 모두들 절개를 굽혀 섬기게 되었다. 그의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적은 뇌물의 목록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 잘나거나 못난 것에 관계치 않았다. 아무리 시정(市井)³⁾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모두 사귀어 상통했다.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도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했다.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했다.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공방의 한마디 말에 황금 백 근만 못하지 않다.”

1) 염철승(鹽鐵丞) 소금과 철을 말하며 화폐 대응으로 쓰였음. 2) 간관(諫官) 사간원·사헌부의 벼슬아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3) 시정(市井) 인가나 상가가 많이 늘어선 번창한 곳, 거리

원제(元帝)가 왕위에 올랐다. 공우(貢禹)⁴⁾가 글을 올려 말했다.

“공방이 어려운 직책을 오랫동안 맡아보는 사이, 그는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장사꾼들의 이익만을 두호(斗護 남을 두둔하고 돌보아 줌)해 주어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서 국가나 민간 할 것 없이 모두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負且乘致寇到)’한 것은 《주역》⁵⁾에 있는 분명한 징계입니다. 청컨대 그를 파면시켜서, 모든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을 징계하시옵소서.”

그때 정권을 잡은 자 중에는 곡량(穀梁)의 학문⁶⁾을 쌓아 정계에 진출한 자가 있었다. 그는 군자(軍資 군대 물자)를 맡은 장군으로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방이 하는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조언했다. 임금이 이들의 말을 들어서 마침내 방은 조정에서 쫓겨나는 몸이 되었다.

그는 자기 문인(門人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전일에 폐하를 만나 뵈고, 나 혼자서 온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았었다. 그리하여 장차 국가의 경제가 넉넉하고 백성들의 재물이 풍족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제 까닭 없는 죄로 내쫓기고 말았구나. 하지만 조정에 나아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받는 것이 내게는 아무런 손해도 되지 않는구나. 다행히 나의 이 목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 아주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감추어져 아무 말도 없이 용납되고 있다. 이제 나는 부평(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과 같은 형색으로 곧장 강회(江淮)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가려다. 약야계(若耶溪)⁷⁾ 위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낚아 술을 마시며, 때로는 바다 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돌면서 남은 일생을 마치려다. 제아무리 천종(千鍾)의 녹(祿)이나 다섯 술⁸⁾의 많은 음식인들 내 어찌 조금이나 부러워해서 이것과 바꾸겠느냐. 하지만 내 심술이

4) 공우(貢禹) 한나라의 관리로 청렴, 정직했던 인물로 유명함. 5) 《주역》 중국 주(周)나라 때 지어진 고대 철학서로, 길흉을 판단하는 점서(占書). 삼경(三經) 중의 하나 6) 곡량(穀梁)의 학문 주(周)나라 때 곡량적(穀梁赤)이 지은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을 뜻함. 7) 약야계(若耶溪) 《전등여화(剪燈餘話)》의 ‘若耶溪裏萬紅芳(약야계 물 속에 붉은 꽃이 가득하다)’이란 구절에 나오는 시냇물 이름 8) 다섯 술 소, 양, 돼지, 물고기, 순록을 담아 제사 지내는 술로 ‘좋은 음식’을 뜻함.

오래 되면 다시 발작할 것만 같다.”

진(晉)나라에 화교(和嬌)⁹⁾란 사람이 있었다. 공방의 풍도를 듣고 기뻐하여 사귀어 수만 냥의 재산을 모았다. 이로부터 화교는 공방을 몹시 좋아해서 한 가지 버릇을 이루고 말았다. 이것을 본 노포(魯褒)¹⁰⁾는 논(論)을 지어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기에 애썼다.

그들 중에서 오직 완적(阮籍)¹¹⁾만은 성품이 활달해서 속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방의 무리와 어울려 술집에 다니면서 취하도록 마시곤 했다. 왕이보(王夷甫)¹²⁾는 입으로 방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방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그저 ‘그것’이라고 했다. 의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방은 이렇게 천대를 받았다.

당(唐)나라 세상이 되었다. 유안(劉晏)이 탁지 판관(度支判官) 조정의 재무를 맡아보던 관원이 되었다.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이다. 당시 국가의 재산은 넉넉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임금에게 아뢰어 방을 이용해서 국가의 재용(財用)을 여유 있게 하려고 했다. 그가 임금에게 아뢴 말은 식화지(食貨志)¹³⁾에 실려 있다.

그러나 그때 방은 죽은 지 이미 오래였다. 다만 그의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국가에서 이들을 불러 방 대신 쓰게 되었다. 이리하여 방의 술책이 개원, 천보(開元, 天寶)¹⁴⁾ 사이에 크게 쓰였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조서를 내려 방에게 조의대부 소부승(朝議大夫少府丞)을 추증하기까지 했다.

남송 신종조(神宗朝) 때에는 왕안석(王安石)¹⁵⁾이 정사를 맡아 다스렸다. 이때 여혜경(呂惠卿)도 불러서 함께 일을 돕게 했다. 이들이 청묘법(靑苗法)¹⁶⁾을 처음 썼는데 이때 온 천하가 시끄러워 아주 못 살게 되었다.

9) 화교(和嬌) 진(晉)나라 서평(西平) 사람으로 집이 부유했으나 돈에 있어서 몹시 인색했다고 함. 10) 노포(魯褒) 진나라 남양 사람으로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원·당 이후 <전신론>을 써서 돈을 비판함. 11) 완적(阮籍) 죽림 칠현의 한 사람으로 술을 몹시 즐겼다고 함. 12) 왕이보(王夷甫) 위진(魏晉) 시대의 인물로 죽림 칠현 중의 한 사람인 왕응의 사촌동생. 성품이 맑고 담백했다고 함. 13) 식화지(食貨志) 중국 역대 정사(正史) 가운데 들어 있는,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기록한 내용. 14) 개원, 천보(開元, 天寶) 모두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로서 서기 713~755년 사이. 15) 왕안석(王安石) 중국 송대의 정치가·학자. 신법(新法)을 만들어 부국강병책을 썼음. 16) 청묘법(靑苗法) 인간의 고리(高利)를 폐하고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관(官)에서 백성에게 쌀 이자로 돈과 곡식을 꾸어 주던 제도. 봄에 꾸어 준 것은 가을에, 가을의 것은 봄에 2부의 이자를 받았음.

소식(蘇軾)¹⁷⁾이 이것을 보고 그 폐단을 혹독하게 비난하여 그들을 모조리 배척하려 했다. 그러나 소식은 도리어 그들의 모함에 빠져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로부터 조정의 모든 선비들은 감히 그들을 비난하지 못했다.

사마광(司馬光)¹⁸⁾은 정승으로 들어가자 그 법을 폐지하자고 아뢰고, 소식을 천거하여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로부터 방의 무리는 차츰 세력이 꺾여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방의 아들 윤(輪)은 몹시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의 욕을 혼자서 먹는 판이었다. 그 뒤에 수형령(水衡令)이 되었으나 죄가 드러나서 마침내 사형을 받고 말았다 한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남의 신하가 된 몸으로서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만을 좇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랴. 방은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집중시켜 자기를 알렸으므로 나라의 은혜를 적지 않게 입었었다. 그러면 의당 국가를 위하여 이익을 일으켜 주고 해를 덜어 주어서 임금의 은혜로운 대우에 보답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도리어 비를 도와서 나라의 권세를 독차지하고 심지어 사사로이 당을 만들기까지 했으니, 이는 충신은 경계 밖의 사귀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어긋나는 것이다.”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는 다시 남송에 쓰였다. 집정한 권신(權臣)들에게 붙어서 그들은 도리어 정당한 사람을 모함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저 명명(冥冥)한(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만일 원제(元帝)가 일찍부터 공우(貢禹)가 한 말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모두 일조에 없애버렸던들 이 같은 후환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니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미덥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17) 소식(蘇軾) 송나라 시인.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 18) 사마광(司馬光) 중국 북송의 정치가·학자.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 관직에서 물러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씀.